

# 친환경·SUV 신모델 출격... 국내 후업계, 올해도 '질주'

현대차 '아이오닉6' 기아 'EV6'  
한국지엠 '볼트EUV' 출시 앞뒤  
팰리세이드·셀토스 등 부분변경



기아 EV6 전측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도 국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는 물론 수입차 업체들도 다양한 신차 출시를 준비하며 고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판매 1위를 기록한 대형 세단의 절대 강자 '그랜저'를 비롯해 전기차를 출시한다. 그랜저는 매년 10만대 이상 판매되며 국내 세단 시장에서 왕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량용 반도체 영향으로 국내 시장에서 8만 9084대를 판매하는데 그쳤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다. 2020년에는 14만대 이상 팔리며 판매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올해 출시되는 그랜저는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에 완전변경된 7세대 모델이다. 이전 모델보다 덩치는 커질 것으

로 예상되며 전기차 모델도 함께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디자인이 공개됐던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도 올해 상반기 출시, 판매에 돌입한다.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4세대 완전변경 모델이다.

또 현대차 SUV 라인업의 큰 형인 대형 SUV 팰리세이드는 부분변경 모델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팰리세이드가 지난 2018년 12월 출시와 함께 국내

SUV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만큼 이번 부분변경 모델도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전기차 라인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이오닉6와 제네시스 GV70 모델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기아는 베스트셀러인 'K5'와 SUV '셀토스' 등의 부분 변경 모델들을 준비 중이다. 또 5년 만의 완전변경을 거친 2세대 '니로'를 선보인다. 또한 전용 전기차인 EV6의 고성능 모델인 EV6 GT

모델도 출시할 방침이다. EV6 GT는 430kW급 듀얼모터가 적용됐으며, 최고 출력 584마력, 최대토크 740Nm의 성능을 갖췄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되는 시간은 3.5초에 불과하다.

쌍용자동차는 첫 전동화 모델인 '코란도 이모션'(e-모션)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코란도 브랜드 가치 계승은 물론 전기차(EV)와 역동성(Motion)의 조합으로 고객의 감성(Emotion)에 충실하다는 의미를 내포한 차량이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배터리 문제로 출시를 미뤘던 순수 전기차 '볼트EV'와 '볼트EUV'를 판매할 전망이다. 두 차량 모두 66kW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됐으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볼트 EUV 403km, 볼트 EV 414km로 400km가 넘는다. 또 한국지엠은 쉐보레 플래그십 SUV 타호와 대형 픽업 트럭 GMC 시에라를 국내 출시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소형 CUV인 'X M3'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들도 전기차 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중형 전기 세단 EQE와 SUV EQB를 준비

중이며, BMW는 쿠페형 전기 세단 i4를 내놓을 예정이다. 미니(MINI) 브랜드는 첫 순수 전기차인 '뉴 미니 일렉트릭'을 계획 중이다. 볼보도 올해 'XC40 리차지' 등 전기차 모델을 앞세워 전동화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전기차 세단인 폴스타2를 국내에 출시한다. 국내 수입차 업체 중 올해 가장 처음 선보이는 전기차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 도요타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렉서스의 순수 전기차 UX300e를 선보인다. 아우디는 'Q4 e-트론' 출시와 더불어 3개 모델을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완성차 브랜드 별로 다양한 신차를 선보이면서 빠르게 시장은 성장할 것"이라며 "전기차와 SU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별 기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차 출시에도 시장 분위기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메타버스·AI... 이통사 '脫통신' 가속화

SKT 메타버스 '이프랜드' 강화  
KT '초거대 AI 모델' 상용화 앞뒤  
LGU+ B2B 솔루션 사업 영역 확대



SKT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

이동통신사들이 올해 비통신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탈통신' 전략에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지난해 3분기 무선사업 성장률이 한자릿수를 기록해 성장이 둔화된 반면, 신사업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여 올해도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SKT는 인공지능(AI)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2025년 매출 목표 22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T우주'를 통해 구독형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이프랜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로 성장시키길 계획이다.

올해는 AI 기반의 추천 로직을 적용해 상품·서비스 혁신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주팩스' 혜택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가격적인 혜택을 새로운 구독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패키지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서비스인 이프랜드는 MZ세대에게 인기를 끌며 지난 12월 누적 이용자 수 450만명을 넘어섰다. 향후 이프랜드 내 메타버스 공간에서 K팝 스타 콘서트나 팬미팅도 개최될 예정이다. 또 올해 글로벌 80여개국에 이프랜드 동시 론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프랜드 오픈스택 퀘스트2, PC 버전 등도 출시 예정이다.

SKT는 또 올해 SK ICT 패밀리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황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통합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KT는 지난해 10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ABC' 중심의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로 '디지코(디지털 플랫폼 기업)'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는 AICC(AI컨택센터) 중심의 AI 비즈니스 전략으로 연간 3조 AICC 시장을 정조준할 계획이다.

KT는 AI 원팀의 공동연구를 통해 '초거대 AI 모델' 개발에 나서 2022년 상반기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KAIST와 함께 'AI 및 SW공동 연구소'를 설립하고 초거대 AI 모델 공동 개발에 힘을 모은다. 또한 글로벌 AI 선도 기업 아마존과 손잡고 올해 초부터 AI 음성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해왔다.

클라우드 영역에서도 국내 최초이자 최대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7000여 기업·공공 고객을 확보하고 공공·금융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KT는 공공 전용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 맞춤형 고성능 DX 인프라 '오픈스택 공공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1등 리더십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준비에 나섰다.

또 KT는 로봇과 바이오헬스 분야에도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 조선히otel, 삼성서울병원 등과 사업 협업을 확대, 호텔로봇, 우편배송로봇, 서

빙로봇 등 로봇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G 특성을 여러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B2B 솔루션을 재정비했고, B2C시장에서도 키즈, 콘텐츠 분야에 집중하며 사업역량을 키워왔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신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U+스마트팩토리' 브랜드로 명명하고 12가지 솔루션을 재편했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팩토리 시장 절반 이상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LG유플러스는 LG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발전소·중공업 등 업종별 대표 사업장에 U+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구축해왔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최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안정성을 입증한 성과를 바탕으로 'U+스마트팩토리'를 지속 확산, 2025년까지 관련 매출을 7배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마트모빌리티사업에서도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내 최대 규모인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반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내년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ICT를 활용해 교통체계 안전성과 이동성, 효율성을 높이는 ITS를 강릉시에 구축하기 위해 시작된다.

LG유플러스의 키즈서비스인 U+아이들나라는 책 읽어주는 TV, 영어유치원 등을 주력 콘텐츠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7월 누적 시청자 수가 5000만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 선보인 아이들나라 4.0은 전용 도서를 찍으면 TV에서 영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유뎀'을 탑재하고, '영어유치원' 서비스 고도화 등이 이뤄져, 독보적인 키즈서비스 지위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 '팀삼성' 연결로 미래 라이프스타일 제안

삼성전자, CES2022 신기술 성공개  
가전·모바일·로봇 등 제품 연결  
미래 신기술 '삼성봇'도 선보여



삼성전자가 처음 공개할 삼성 봇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2'에서 스마트싱스 중심 가전을 비롯해 새로운 폼팩터 디스플레이, 로봇 등 신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5일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열리는 CES2022에서 가장 넓은 3596㎡ 규모 전시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부스 입구는 '팀삼성' 존이 먼저 관람객을 반긴다. 팀삼성은 삼성전자가 차별화된 AI와 IoT 기술을 기반으로 선보이는 활동을 뜻하며, '스마트싱스'를 중심으로 가전과 모바일 등 제품을 연결해 유기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CES에서는 IoT 허브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TV와 최적의 레시피를 추천하고 조리기기와 연결해주는 '스마트싱스 쿠킹', 최대 2개월간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세워주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등을 선보인다. 스마트싱스 기반 기기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홈 허브'도 준비했다.

새로운 TV 라인업도 소개한다. 마이크로 LED TV 110형에 이어 처음으로 선보이는 101형과 89형 모델을 비롯해 화질과 사운드 등 요소를 강화해 '인 홈 액티비티'에 최적화한 네오 QLED TV 등이다. 세계 최초로 콘텐츠 구매와 감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NFT 플랫폼도 장착했다.

세계 최초로 4K 240Hz를 구현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G8'과 스마트 모니터 M8, 빛 반사를 최소화한 매트 디스플레이와 고해상도 모니터 S8 등 '스크린 에브리웨어, 스크린 포울'에 걸맞은 다양한 제품도 내놓는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비스포크홈' 라인업도 소개한다. 비스포크 키친 패키지과 비스포크 제트, 패밀리허브를 탑재한 비스포크 냉장고 등이다. 특히 비스포크냉장고는 푸드 AI를 강화하고 삼성 TV플러스 지원, 소모품 교체와 구매 알림 서비스 등 기능을 더했다.

갤럭시 S21 FE도 CES2022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슬림한 본체와 4가지 색상 등 갤럭시 팬들이 선호하는 기능을 엄선했다. '유어 갤럭시, 유어 웨이'를 주제로 갤럭시Z 폴드 비스포크 에디션과 워터U4를 통해 난간의 갤럭시를 꾸미는 특별한 경험도 마련했다. 갤럭시 북과 탭, 워치 등 갤럭시 라인업도 함께 마련했다.

미래 신기술도 있다. 'AI 아바타'와 '삼성 봇'이 주인공. '사용자 맞춤형 미래 홈'을 위한 라이프 어시스턴트와 로봇이다. AI 아바타는 온디바이스 대화 인식과 UWB 위치 인식, IoT 가전 제어 기능 등을 탑재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삼성 봇 아이는 사용자를 보조하며 원격으로 제어도 가능하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재용기자 juk@